14세기의 테마섹과 싱가푸라: 고고학과 연대기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문헌 사료: 중국, 자바, 말레이

1819년 이전 이 섬의 역사는 세 종류의 문헌 증거에 기반합니다. 중국의 여행기 및 지리서, 자바의 궁정시, 그리고 말레이의 역사 전승입니다. 각 사료는 고유한 관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14세기 싱가포르에 대한 현대의 이해는 이 사료들을 함께 읽고 고고학적 기록과 대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국 사료는 왕대연(汪大淵, Wang Dayuan)의 *Daoyi Zhilüe*(『도이지략(島夷志略)』, "섬 오랑캐에 관한 간략한 기록")입니다. 왕대연은 1330년 무렵 남양을 항해한 상인 겸 여행가로, 14세기 중엽에 이 기록을 완성했습니다.[1] 왕대연은 테마섹을 중국식으로 옮긴 단마시(Danmaxi, 單馬錫)라는 곳을 묘사하면서 그 안의 두 지역을 구분했습니다. 첫째인 용아문(龍牙門, Longyamen), 즉 "용의 이빨 문"은 배들이 지나가는 두 언덕 사이의 해협이었습니다. 둘째인 반졸(班卒, Banzu)은 상인들이 사는 언덕 위의 정착지였습니다.[2]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왕대연의 기록은 두 지역을 뚜렷하게 대비시킵니다. 용아문에 관해 그는 서양(西洋)에서 돌아오는 배들이 200~300척의 배로 공격해 오는 해적을 만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졸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정직한 상인이며, 머리를 짧게 하고 금실로 수놓은 공단 터번을 두르고 붉은 옷을 입는다고 썼습니다.[3] 반졸은 일반적으로 포트 캐닝 힐(Fort Canning Hill) 일대로, 용아문은 오늘날의 케펠 항(Keppel Harbour) 부근인 항구의 서쪽 입구로 비정됩니다.[4] 왕대연은 또한 현지 산물에 강향목(lakawood)과 주석이 있었으며, 주민들이 취안저우에서 온 중국 상인들과 교역했다고 기록했습니다.[5]

왕대연의 기록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세부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테마섹이 시암의 공격을 받았으며 도시가 한 달 동안 포위를 견뎌 냈다고 전했습니다.[6] 이 일화는 이 정착지가 대륙 세력의 관심을 끌 만큼 가치가 있었고, 스스로를 방어할 만큼 강했음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더 큰 이웃 세력들 사이에서 위태로웠던 처지도 보여 줍니다.

자바 사료는 동부 자바의 마자파힛 왕국을 찬양하기 위해 1365년에 지어진 궁정시 *Nagarakretagama*(『나가라크르타가마』)입니다. 이 시는 시인이 마자파힛의 봉신으로 여긴 영토 가운데 투마식(Tumasik)을 열거합니다.[7] 궁정시는 주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록은 마자파힛의 실효적 지배보다는 그 야망을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착지가 군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수도에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고, 영유를 주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졌음을 확인해 줍니다.

세 번째 사료는 말레이의 역사 전승, 그중에서도 *Sejarah Melayu*(『스자라 믈라유』), 즉 "말레이 연대기"입니다. 이는 15세기와 16세기에 편찬되고 17세기 초에 개정된 말라카 왕조의 궁정 연대기입니다.[8] 이 연대기는 훗날 말라카를 통치한 왕조의 첫 도읍으로서 싱가푸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말라카와 조호르 통치자들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쓰인 이 연대기는 연대가 불확실한 왕조사입니다. 그럼에도 싱가푸라에 관한 서술은 큰 틀에서 중국 사료 및 고고학적 증거와 일치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말레이 연대기와 건국 전설

*Sejarah Melayu*에 따르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손을 자처한 팔렘방의 왕자 상 닐라 우타마(Sang Nila Utama)가 테마섹 섬에 상륙하여 낯설고 강인한 짐승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길조로 여겨 섬에 도시를 세우고 "사자의 도시"라는 뜻의 싱가푸라(Singapura)라 이름 붙였습니다.[9] 도시가 함락되기 전까지 다섯 명의 통치자가 싱가푸라를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후대의 전승은 건국 시기를 1299년 무렵으로 보며, 이 연도는 싱가포르의 오랜 역사에 관한 공식 서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10]

이 전설은 여러 주장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팔렘방 혈통은 싱가푸라를 스리위자야의 위신과 연결합니다. 알렉산드로스 혈통은 연대기가 쓰인 더 넓은 이슬람 세계와 왕조를 연결합니다. 이 섬에 한 번도 서식한 적이 없는 동물인 사자는 평범한 정착지를 하늘이 선택한 장소로 바꿉니다. 금융센터의 역사가에게 이 전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정당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해협의 항구에는 상인과 이웃 모두가 권위를 인정하는 통치자가 필요했습니다. 건국 전설은 그러한 인정을 얻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연대기에는 도시가 직면한 위험을 반영하는 일화들도 담겨 있습니다. 한 소년이 바나나 줄기로 방벽을 쌓자는 꾀를 내어 황새치의 공격을 물리친 이야기, 그리고 강어귀의 큰 바위와 관련하여 괴력이 전해지는 장사 바당(Badang)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11] 역사가들은 황새치 일화를 바다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우화로 읽습니다. 그 기원이 무엇이든, 이 일화는 사료 전반에 흐르는 주제를 확인해 줍니다. 도시의 번영은 끊임없이 바다로부터 위협받았습니다.

고고학: 땅속의 증거

오랫동안 14세기의 도시는 이러한 문헌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역사가들은 중요한 정착지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심했습니다. 고고학이 이러한 평가를 바꾸었습니다. 초기의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1819년 싱가포르강 어귀에서 정글을 개간하던 인부들이 약 50행의 명문이 새겨진 커다란 사암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싱가포르 스톤(Singapore Stone)은 높이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약 3미터, 너비 약 3미터에 달했습니다. 1843년, 강어귀의 통로를 정비하고 넓히기 위해 정착지 기사 대리(acting Settlement Engineer)의 명령으로 폭파되었습니다.[12] 수습된 파편 가운데 일부는 캘커타로 보내졌고, 하나는 오늘날 싱가포르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명문은 아직 해독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학자 헨드릭 케른(Hendrik Kern)은 그 연대를 1230년 무렵으로 추정했습니다.[13]

1928년 포트 캐닝 힐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14세기 중엽의 금 장신구 여러 점을 발견했습니다.[14] 동부 자바 양식의 이 장신구들은 마자파힛과 연결된 부유한 엘리트층의 존재를 시사했습니다. 이 발견은 1819년 당시 말레이인들이 "금지된 언덕"이라는 뜻의 부킷 라랑안(Bukit Larangan)이라 부르던 이 언덕에 한때 궁정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체계적인 발굴은 198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고고학자 존 믹식(John Miksic)은 1984년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포트 캐닝에서 첫 발굴을 실시하여, 14세기의 도자기 파편 1,346점, 총 14.31kg을 수습했습니다.[15] 이후 1994년 국회의사당 단지, 1998년 엠프레스 플레이스(Empress Place), 2003년 싱가포르 크리켓 클럽의 파당(Padang)과 세인트 앤드루 대성당 부지에서 추가 발굴이 이어졌습니다.[16]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14세기의 테마섹은 믈라카 해협에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잘 기록된 항구 정착지입니다.[17]

발굴물을 통해 정착지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는 작업장을 갖춘 궁정이 있었고, 강의 북쪽 기슭을 따라 상품을 하역하고 보관하고 가공하던 상업 지구가 있었습니다. 발굴물의 대부분은 중국 도자기입니다. 석기질 저장 항아리, 청화백자와 청자를 포함한 원나라 시대의 자기, 그리고 일상용 토기가 그것입니다. 동전, 유리, 구슬, 금속 공예품은 중국, 인도, 군도와의 교역을 증언합니다. 금속 가공의 흔적은 이 정착지가 원료도 가공했음을 시사합니다.[18]

이 책의 목적상 세 가지 결론이 중요합니다. 첫째, 테마섹은 당대의 주요 교역망과 연결된 실제 시장을 갖춘 실제 항구였습니다. 둘째, 그 번영은 중계 및 재수출 무역에 기반했으며, 이는 1819년 이후 영국 정착지가 수행할 기능과 같았습니다. 셋째, 그 교역은 중국을 지향했고, 중국의 상품과 아마도 중국 상인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이 정착지에 있었습니다. 14세기의 항구는 중계무역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단어로 스스로를 설명하는 현대 도시는 1819년의 이야기가 암시하는 것보다 더 긴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한 오해

래플스가 도착했을 때 싱가포르는 한적한 어촌이었고 그 역사는 1819년에 시작되었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이 말의 앞부분은 1819년 당시의 섬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테멩공(Temenggong)의 정착지 인구는 약 150명으로 대부분 말레이인이었고 중국인은 약 30명이었으며, 섬 전체 인구는 약 1,000명으로 그 대부분은 현지 해양 민족이었습니다.[19] 그러나 뒷부분은 틀렸습니다. 이 섬은 그보다 5세기 전에 지역적으로 중요한 항구였으며, 영국인 건설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래플스는 싱가푸라에 관한 말레이 전승을 알고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그 역사적 연관성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시암과 마자파힛 사이의 항구

14세기의 항구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존재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말레이반도 아래로 영향력을 넓힌 타이 왕국들이 반도의 항구들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했습니다. 남동쪽에서는 마자파힛이 군도의 항구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왕대연이 기록했듯이 테마섹은 시암의 포위를 견뎌 냈고, 마자파힛의 궁정시에는 봉신으로 등장합니다. 테마섹의 통치자들은 아마도 두 세력 및 중국과 모두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역을 수익성 있게 만드는 자율성을 내주지 않고도 교역을 보장해 주는 인정을 구했을 것입니다.

강대국 사이의 이러한 위치는 싱가포르 역사에서 반복되는 특징입니다. 현대 공화국은 더 큰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그 모두와 관계를 가꾸는 외교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 정책은 이 책의 F부에서 다룹니다. 테마섹의 통치자들에게 현대적 의미의 외교 정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적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가치 있는 교역을 가진 작은 항구로서, 이웃들의 용인과 그 모두에게 쓸모 있는 존재라는 점에 의존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싱가푸라의 몰락

14세기 도시의 종말은 전승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ejarah Melayu*는 한 통치자가 거짓 고발을 믿고 궁정의 한 여인을 처형하자, 고위 관리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복수를 위해 침공해 온 자바 함대에 도시의 성문을 열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메 피르스(Tomé Pires)의 기록을 포함한 16세기 포르투갈 사료는 팔렘방의 왕자 파라메스와라(Parameswara)가 싱가푸라로 피신하여 현지 통치자를 살해하고 몇 년간 섬을 다스리다가 쫓겨났다고 전합니다.[20] 어느 쪽이 실제 사건에 더 가깝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1398년 무렵 싱가푸라의 통치자는 북쪽으로 도망쳐 말라카에 새로운 정착지를 세웠고, 그곳에서 연대기가 기록하는 왕조를 열었습니다.[21]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섬의 정착지는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5세기의 발굴물은 14세기의 것보다 적은데, 이는 상업 지구가 점진적으로 쇠퇴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궁정은 말라카로 옮겨 갔고, 교역을 끌어들이고 보호하던 정치적 권위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보호와 인정을 제공할 수 있는 통치자가 없어지자 섬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섬은 선원들에게 알려져 있고 때때로 현지 족장들이 이용하는 항로상의 장소로 남았지만, 더 이상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싱가푸라의 몰락은 이 책의 첫 번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항구의 번영은 제도, 즉 인정받는 권위, 안전한 시장, 예측 가능한 세금에 기반했으며, 그 제도는 옮겨 갈 수 있었습니다. 궁정이 떠나자 교역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리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리를 부로 바꾸어 주던 제도는 궁정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주

1. *Daoyi Zhilüe*는 보통 1349년의 저작으로 보며, 왕대연의 항해는 133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Wikipedia, “Daoyi Zhilüe” 및 “Wang Dayuan”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그리고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Gesellschaft 169 (2019), “Deconstructing Banzu and Longyamen: The Daoyi zhilüe (1349) in the New Early History of Singapore”의 논의 참조. ↩

2. Wikipedia, “Temasek”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왕대연 인용: “Longyamen is intersected with two mountains belonging to the Temasek natives, akin to a dragon teeth-like formation, with a water channel running through the middle.” ↩

3. Wikipedia, “Temasek”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with two to three hundred perahus”로 공격한 용아문의 해적들과, “wear their hair short, with turban of gold-brocaded satin, and red-coloured clothing”하는 반졸 주민들에 관한 왕대연 인용. ↩

4. 반졸을 포트 캐닝 힐로, 용아문을 케펠 항의 통로로 비정하는 견해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인용한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169 (2019)의 논문 및 Wikipedia, “Long Ya Men”과 “Ban Zu”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참조. ↩

5. Wikipedia, “Temasek”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왕대연의 기록 요약: 강향목과 주석이 현지에서 생산되었고, 주민들은 취안저우에서 온 중국인들과 교역했습니다. ↩

6. Wikipedia, “Temasek”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왕대연은 “the city successfully resisted the attack for a month”라고 전했습니다. ↩

7. Wikipedia, “Temasek”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1365년에 쓰인 *Nagarakretagama*는 “listed Tumasik as a vassal of the Majapahit”. ↩

8. *Sejarah Melayu*의 연대와 이본에 관하여는 C.C. Brown (trans.), *Sejarah Melayu or Malay Annals*,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1952년판 재판), 서론 참조. 현존 텍스트의 기초로는 보통 1612년 이본을 듭니다. ↩

9. C.C. Brown (trans.), *Sejarah Melayu or Malay Annals*, 제3장, 상 닐라 우타마의 도착과 싱가푸라의 명명에 관하여. 연대기는 이 통치자를 이스칸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르 줄카르나인(Iskandar Zulkarnain,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손으로 제시합니다. ↩

10. Kwa Chong Guan, “Remembering John Norman Miksic”, *BiblioAsia*, vol. 21, issue 4, 2026년 1월, 1299년 무렵 싱가푸라를 세운 전설 속 왕자의 통치 거점에 관하여. ↩

11. C.C. Brown (trans.), *Sejarah Melayu or Malay Annals*, 황새치의 공격과 바당에 관하여. 바당과 싱가포르 스톤의 연결은 후대의 대중적 연상입니다. ↩

12.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Infopedia, “Singapore Stone” (1819년 6월 로키 포인트(Rocky Point)에서 발견, 크기 약 3m×3m, 명문 약 50행, 1843년 정착지 기사 대리 스티븐슨(Stevenson) 대위의 명령으로 파괴). ↩

13. National Library Board Singapore, Infopedia, “Singapore Stone”: 제임스 로(James Low) 중령이 파편을 수습했으며, 그중 2점은 캘커타의 왕립아시아학회(Royal Asiatic Society) 박물관으로 보내졌고, 현존 유물은 싱가포르에 전시되어 있으며, 케른은 그 연대를 1230년 무렵으로 추정했습니다. ↩

14. Wikipedia, “Temasek”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1928년 포트 캐닝 힐에서 “several pieces of gold ornaments dating to the mid-14th century were discovered”. ↩

15. Kwa Chong Guan, “Remembering John Norman Miksic”, *BiblioAsia*, vol. 21, issue 4, 2026년 1월 (1984년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포트 캐닝 첫 발굴, 14세기의 도자기 파편 1,346점, 총 14.31kg). ↩

16. Kwa Chong Guan, “Remembering John Norman Miksic”, *BiblioAsia*, vol. 21, issue 4, 2026년 1월 (1994년 국회의사당 단지, 1998년 엠프레스 플레이스, 2003년 싱가포르 크리켓 클럽 파당, 2003년 세인트 앤드루 대성당). ↩

17. Kwa Chong Guan, “Remembering John Norman Miksic”, *BiblioAsia*, vol. 21, issue 4, 2026년 1월. 그 결과는 2018년 제1회 싱가포르 역사상(Singapore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History Prize)을 수상한 John N. Miksic, *Singapore and the Silk Road of the Sea, 1300–1800*, Singapore, NUS Press, 2013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18. John N. Miksic, *Singapore and the Silk Road of the Sea, 1300–1800*, Singapore, NUS Press, 2013에 근거한 고고학적 개요의 요약. ↩

19. Wikipedia, "Founding years of modern Singapore"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약 150명 규모로 "most of them Malays, with around 30 Chinese"였던 테멩공의 정착지와 "around a thousand"였던 전체 인구에 관하여. ↩

20. Wikipedia, "Temasek"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포르투갈 사료에 따르면 파라메스와라는 믈라카로 옮겨 가기 전 "ruled Singapura for five years". ↩

21. Wikipedia, "Malacca Sultanate"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파라메스와라는 1398년 싱가포르가 함락된 후 1400년 무렵 말라카를 세웠습니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